

혼란스럽다는 말도 이제는 식상하다. 사회 어느 분야고 온전한 곳 없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사람들은 직급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할 지경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늘 풍성한데 정작 '살만한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를 어떻게 진단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부처님께서도 나와 남이 둘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네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부처님이 제시하는 해법을 듣는다. <편집자>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 오늘의 난국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요

# '나와 남 둘 아닌 하나' ... 명심하고 실천

## 정치 "대화정치로 국민화합 이끌자"

부처님은 오늘의 한국 정치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 놓으실까? 왕궁을 떠나 출가하신 분이라 정치를 나 몰라라 하실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길에 전념하신 것이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대왕과 대신들의 귀의를 받아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도하셨고 국제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전쟁을 예방하시기도 했다.



정천구 <영산대 국제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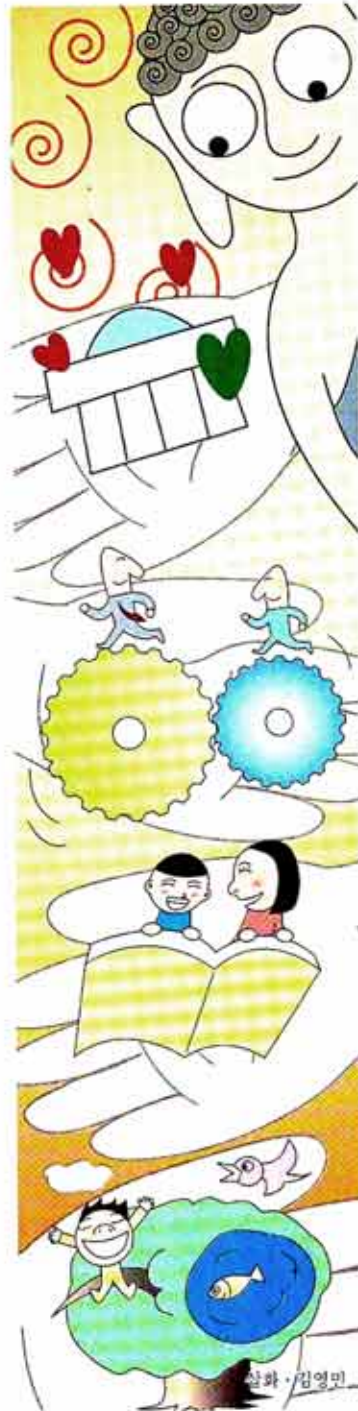
임을 갖고 올바른 정사(政事)를 논의하는가 이고, 그 둘째가 '군신이 서로 화순하고 왕사(王)와 아랫사람이 서로 존경하는가'인 것이다. 먼저 대외정치와 내정(內政)인 국외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하고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바른 정치를 논의하도록 하라. 또한 지도층이 솔선하여 계층과 계층간, 지역과 지역간에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부처님은 설하실 것 같다.

급 가지 중 한 가지만 지켜도 타국이 공격하여 탈취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또한 지나친 부의 불균형 상태를 경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부처님은 대통령에게 남북한 정상이 서로 만나 화해 협력을 논의한 것을 평가하고 상호불신의 원인을 잘 살펴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부처님은 특히 대통령에게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노여움을 내지 말며, 남의 충언을 잘 가려 들으라 말씀하지 않을까.

부처님께 오늘의 정치에 대해 법문을 청하면 먼저 대화정치와 국민화합을 말씀하실 것 같다. 외침의 위협에 처한 발자국에서 부처님은 나라를 지키는 일곱 가지 법(七支法)을 설하셨다. 그 중 첫째가 '국민들이 자주 모

찰지법의 나머지는 3법과 예의 준수 4부모 스승, 어른에 대한 효도와 공경 5종묘와 조상 경배 6여성의 정결 7성직자의 존중과 봉양 등인데 일



## 교육 "이기심 떨치고 지혜교육으로"

한 불자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누구나 우리 교육이 문제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큰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를 듣고 부처님은 드디어 말씀을 여셨다.

서명석 <동국대 교육철학 강사>

"자 들어보게,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깨우침을 베푸는(下化衆生)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가르침과 배우는 활동 속에 침투되어 있어야 하네. 여기서 스승과 제자라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만남을 선(善)에서 출발동시(平等同時) 입속시켜 놓았지 않나.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런가. 나를 진정으로 깨우쳐주는 스승과



세계도 분명 있지. 인간은 원래 나와 같은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존재론적 속업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살수밖에 없지. 이런 어리석음과 이기적임이 교육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깨닫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속에서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 탈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혜교육이라네. 이것이야말로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교육을 지혜교육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 말일세.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부처님은 홀연히 자리를 뜨셨다.

그런 스승을 받들어 모시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요즘은 아이들을 보세. 그들은 지금 지식-정보-기술 삼위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다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것들의 배달부로 안위하고 있지. 대다수 사람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이것들만을 빔냈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라네. 여기에는 뜻나름을 지위나가면서 더 큰 존재로 커나기도 해야 하는 장치가 근원적으로 없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으로 회개반조하여 들어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교육의

## 경제 "노-사 대립 아닌 공존의 동반자"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조조정'이다. 이는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노사관계가 갈등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고대노예 사회 이래로 노동은 상품가치로만 평가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박승원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적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보면, 누구나 보고 있는 면을 앞면, 보이지 않는 면을 뒷면으로 생각한다. 눈을 감고 종이를 몇 번이나 뒤집어 놓아도 마음속에 표리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때 손으로 종이를 집어 올려 보자. 3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 종이에 대한 표리의 구별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야 비로소 종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적 사회이다. 노사는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의 본질을 자각하고 상호신체를 존중함으로써 원성실성에 이를 수 있다.

이제는 단지 노사관계만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는 곧 경영자의 가치이며, 주주의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의 지나친 부의 증가는 곧 다른 한 편에서의 빈곤으로 직결됨을 인식한다면, 경제정의 실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를 이룰 때이다.

불교에서는 사물은 세 가지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삼성이라 한다. 즉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이 그것이다. 의타기성이란 남에게 의존해서 나타나는 사물의 본성으로 연기라고도 한다. 변계소집성은 주객의 대립 속에서 허망한 본명으로 나타나서 성질이며, 원성실성은 본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식하는 사물의 참 모습이다.

이름 몇 번이나 뒤집어 놓아도 마음속에 표리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때 손으로 종이를 집어 올려 보자. 3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 종이에 대한 표리의 구별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야 비로소 종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노사관계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처럼 더 이상 본명대립관계가 아니라, 그냥 통틀어 기업이라는 하나의 실체일 따름이다. 그리고 미래지식사회는 개체를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체를 존중하는 유기체

## 환경 "생명있는 모든것 더불어 살라"

새안금의 대함과 철새가 죽는 것. 그린벨트의 숲이 베어지고 풀벌레, 새들과 짐승이 사라지는 것. 달으로 수장되는 무수한 땅의 벌레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저지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진다. 수직적인 개발과 경제성장, 지금의 죽임의 행위는 도저히 정지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집단적 자살 앞에 부처님은 뭐라고 하실까?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불살생 계율은 생명에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인간이 지구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며, 나아가 겸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과의 이치로 보아 결국 나 자신 생명의 죽음은 인간



을 위한 행위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집단자살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물로 알리는 부처님의 메시지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행위의 과보이지만 그래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선지식만 깨달았지만 이제 전지구사람들이 한꺼번에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질병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삶과 생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질병이라면 스스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수행을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면, 아주 좋은 깨달음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위기는 메시지가 있다.

# 마음 청정 나라 청정

대한불교 조계종은 心淸淨 國土淸淨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혼탁한 사회와 세상을 맑히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5년 사월초파일

- 중정혜암
- 원로회의의장 법전
- 총무원장 정대
- 중앙중회의의장 지하
- 호계원장 윌서

대한불교조계종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